시인의 마을

작은 입학식에 대하여

소입학(小入學)아,
넌, 그 누구보다도, 더 너를, 격하게 환영한다

꽃비처럼 피어난,
간지러운 밀고 당기기의 진정한 일번지는 공부다

-입학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작
-입학을 축하합니다

삼월이면, 눈동자가 맵도록 눈에 들어오는 입학이란 두 글자다
채움의 미학 같은 뻔뻔하면서도 게슴츠레한** 문장이 미소 짓는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한 거 아냐?
-이게 다야
-왜 학교에 온 거야
-뭐야, 작은 입학식은

작은 입학식, 익숙한 듯 낯선 단어에

배움의 길은 변기에 풀린 화장지가 되어 사라진다

소입학(小入學)아,
막 터진 꽃잎처럼 어여쁜 입학(入學)아

어지럽게 내리는 이슬방울을 영양제 삼아
넌, 가뭄의 단비처럼 세상을 밝히는 선물임을 잊지 말 거라

배움의 길, 아무도 모르는
그 길엔, 토닥토닥 저물어가는 시간 너머 발 냄새가 스멀스멀할지도 모르겠다

- 박여범 시인, '작은 입학식에 대하여' 전문

**게슴츠레 - 눈에 힘이 없이 아주 흐릿하여 거의 감길 듯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

‖ 시詩를 담다 ‖

〈입학을 환영합니다〉, 이월의 마지막 날, 내게 눈에 들어온 문장이다. 당당하게 서 있는 녀석에게 심술이 난다. 나도 모르게 대화를 시도해 본다./입학(入學)아,/넌, 너를, 너를 격하게 환영한다/ 답이 없다. 이렇게 밀고 당기기가 시작된다.

핵심은 /꽃비처럼 피어난,/간지러운 밀고 당기기의 진정한 일번지는 공부/다.

삼월이면, 눈동자가 맵도록 눈에 들어오는 게 친숙하다 못해, 채움의 미학 같은 뻔뻔하고 게슴츠레한 문장이 미소 짓는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한 거 아냐/, /-이게 다야/, /-왜 학교에 온 거야/, /-뭐야, 작은 입학식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다. 불만이 가득하다. 기대가 컸었나 보다.

작은 입학식, 익숙한 듯 낯선 단어에 배움의 길은 변기에 풀린 화장지가 되어 사라진다. /입학(入學)아,/막 터진 꽃잎처럼 어여쁜 입학(入學)아/어지럽게 내리는 이슬방울을 영양제 삼아/넌, 가뭄의 단비처럼 세상을 밝히는 선물/임을 잊지 마라. 배움의 길, 그 길은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그 길엔, 토닥토닥 저물어가는 시간 너머 발 냄새가 스멀스멀할지도 모르겠다.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사 설

노인세대의 스포츠 열기

65세 이상 스포츠 동호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기가 높아가는 종목은 탁구, 볼링, 당구 등 다양하다. 종전에 게이트볼로 상징되는 노인 스포츠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노인세대에 스며들면서 폭이 넓어진 것이다. 아침 일찍부터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즐기는 노인은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젊은 노인들이 게이트볼 대신 탁구·당구·축구 등의 스포츠를 즐기면서 게이트볼 인구가 줄고 있다.

60~70대 초반 노인들에겐 '게이트볼은 80대 때 즐기는 운동'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게이트볼 경기장을 갖춘 일부 노인복지관에서도 경기장을 다른 종목으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 프로그램은 탁구와 당구다. 대부분의 노인종합복지관이 탁구장과 당구 시설을 갖췄을 정도다. 탁구의 인기 요인은 운동효과 덕분이다.

탁구는 동작이 과격하지 않아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팔과 다리, 몸통, 허리 등 전신근육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공이 여러 방향으로 튀고 회전률이 높아 이에 대한 빠른 대응과 순발력이 중요하다. 당구 역시 단순한 동작만으로 혈액순환,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볼을 치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펴면 자연스레 허리 운동이 된다. 자세를 잡다 보면 팔다리의 유연성이 길러진다. 볼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려고 머리를 사용하다보면 자연스레 두뇌 운동도 된다.

볼링도 인기 노인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다. 자신의 몸에 맞는 볼을 골라서 바른 자세로 굴리면 오히려 운동이 된다. 노인 스포츠에 탁구, 당구, 볼링뿐 아니라 생활체조, 자전거, 검도, 댄스스포츠 등의 종목도 차츰 늘려나가야 할 때이다.

동학혁명과 '지금 바로 민족통일' 행사

'지금 바로 민족통일' 행사가 지난 2월 15일 전국 40여개 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읍시 대흥마을 무명동학군 위령탑 사발통문의 모의탑에서 있었다.

1부 행사는 고천문 낭독과 사발통문 재현이 있었다. 2부는 대회장 이근재 UPF -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회장의 인사에 이어 김영용 4.19 통일의병대장, 심의두 한글세계화문화재단 이사장, 허종현 전북종교인연합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한편 참가 단체는 동학농민유족회, 지금바로민족통일연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UPF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동학민족통일회, 생명살리기운동전북본부, 정여립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한글세계화문화재단 등이다.

그밖에 정읍동학혁명계승사업회를 비롯해 4.19 통일의병대, 한백통일재단, 한반도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대동세상연구회, 동이문화원, 한국습지환경보전연합, 중소기업경제인협회전북지부, 정읍시자율방범연합회 등이다.

한국농어촌신문, 시사매거진, 호남소리, 시사전북, 의료법인 어의당 병원 등이 협찬했다. 참석자들은 '휴전선 장벽과 철조망을 끊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행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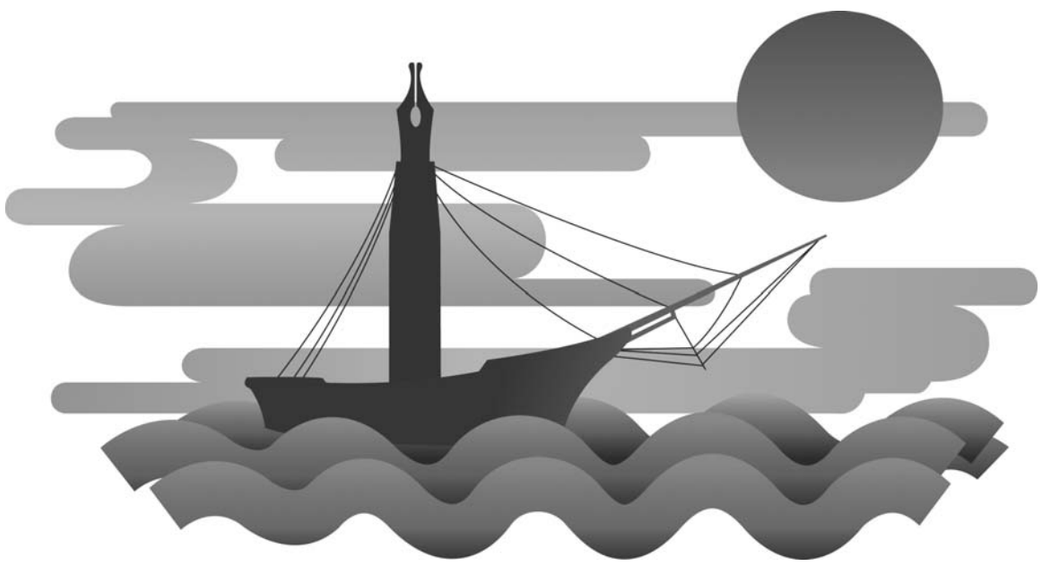
그리고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과 동학정신을 '지금 바로 민족통일'로 연결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은 분단된 지 77년이 되도록 휴전선 철조망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에 앞서 129년 전 동학 농민군은 '구폭제민,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났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각급 민간단체의 통일운동이 추진되어왔다.

이제는 동학 농민 혁명 정신을 본받아 자발적인 국민운동으로 나아가는 일도 필요하다. 공영공생 공의의 가치가 살아있는 신통일한국을 이뤄나가는데 다같이 진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